



아미엘 오르티즈와 부림절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8년 3월 23일

이번 주 이스라엘은 에스더 서에 기록된 사건을 기념하는 부림절을 맞았습니다. 에스더 서를 읽고, 아이와 어른들이 의상을 차려 입으며 가족들 간에 선물을 주고 받는 때죠. 부활절 행사와 카니발의 중간 정도 되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목요일 오후 2:30 경, 사마리아 정착촌의 아리엘 Ariel에 사는 오르티즈 Ortiz 가족의 집 앞에 “행복한 부림절 보내세요”라는 표가 붙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자는 가장인 다비드 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다비드는 아리엘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목회자입니다.

오르티즈 부부는 여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성장한 다섯은 이미 군 복무를 마쳤고, 막내 아들 아미엘 Amiel은 15살로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아미엘은 소포를 집 안으로 가져왔는데, 부엌에 들어가 식탁에서 소포를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폭발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폭음을 들은 한 이웃이 달려와 상처를 입고 바닥에서 피 흘리는 아미엘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아미엘은 페타흐 티크바 Petach Tikvah에 있는 슈나이더 병원으로 직송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오르티즈 가정을 문병한 한 메시아닉 목회자는 아미엘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그의 목과 얼굴, 가슴엔 2-3도 화상을 입었다. 그의 한 쪽 폐에 박힌 금속 조각은 빼내지 말아야 할 수도 있다. 금속 조각 하나가 눈에 박혀있어서 제거했지만, 아직 그 눈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발가락 두 개를 절단해야 했고, 허벅지엔 심각한 출혈이 있어 장래 힘을 쓸 수 있을지 근심을 불러오고 있다. 양쪽 손에도 심한 상처가 있다.

아파트 전체에 큰 타격을 가한 그 폭발물이 아미엘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지만 아미엘은 여전히 위독한 상황으로, 우리의 기도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탄 공격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일환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과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의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유대인이라는 이유 두 가지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증오합니다.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은 예수아를 믿는 것과 유대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이유 두 가지로 그들을 증오합니다.)

이번 공격이 유대인이나 무슬림 그룹 중 한 곳에서 계획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이 거룩한 부림절에, 저희는 에스더 서를 떠올립니다. 이란의 “총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던 이야기 말이죠. 그 오래 전 일어났던 영적 전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2:12 -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발간되는 가장 큰 신문인 예디오투 아흐로노트의 금요일자 6면에 반 페이지 분량으로 실렸습니다. 일요일엔 11 쪽에 전면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게 보도했습니다. 저희를 거의 이단이나 한 종파로 일컬었고, 사건의 테러적인 부분은 평가절하시켰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메시아닉 유대교를 이스라엘 언론에 가장 널리 노출시킨 일입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더 많은 보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비극 앞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친구의 희생을 기억하사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돌파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론 보도가 바로 된다면, 이번 주말까지 사실상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나 예수아 신앙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가능해집니다.

요한 계시록 12:11 -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 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메시아닉 공동체들은 아미엘과 오르티즈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저희와 더불어 긍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안에서 진정 하나되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아미엘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도록
2. 오르티즈 가정이 복을 누리고 온전해 지도록
3. 범인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도록
4. 모든 이스라엘 언론에 예수아에 대한 긍정적 증거가 이뤄지도록
5. 증오와 종교적 광신의 영이 묶이도록
6. 메시아닉 공동체들 간에 연합과 겸손, 담대함이 자라나도록

번역- 고병현

Shaul Syunghyun Go